

다들 물어봐 그 희망을

2021년 여름호
NO.146

기획

한국여성재단 2021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

-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라!
- 유한킴벌리 직원들의 2021 기부 릴레이
- 한국여성재단의 소중한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이슈와 현장

-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이주여성들과 함께 합니다!
- 미래를 변화시킬 주역이 될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꿈꿉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1인 생활자 공간 <결>의 대표, 차해영 활동가
- 주인공 '소장'의 위태로운 홀로서기를 그린 영화 <열아홉>의 우경희 감독





한국여성재단의 모금 캠페인을 응원하면서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서울대 명예교수

코로나19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준다. 특히 집이 없고, 병 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일과 삶의 밸런스를 뜻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리는 한국의 대다수 여성들에게는 일상적 삶이 더욱 팍팍하고 힘겹게 다가온다. 사실상 세계 경제 위기와 불안의 징조에 대해 일찍이 선각자들은 단순한 물질적 충족을 위한 개발과 경제성장의 한계를 수없이 지적해왔다. 자연 파괴만이 아니라 인간 파괴까지 가져다주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만능주의 개발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전 세계가 함께 힘을 쏟아야 함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돈의 위력에 사정없이 굴종한 인간의 탐욕이 기후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전염병을 야기시키고 결국 전 세계로 하여금 불황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요즘 생생히 체감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현상의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사회구성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현대사회의 다양해진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 영역으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행인 것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사회 활성화에 필요 불가결한 나눔의 실천과 자원봉사,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리고 각종 공익 재단들이 많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타파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갖고 있다. 특히 여성, 교육, 복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향후 한국여성재단이 이를 잘 활용하는 일이 기대된다.

2021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모금은 모금의 명분과 동기부여, 독려 방식, 참여방식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문제는 그 활동 안에 명확한 조직과 개인의 명분이 강할 때 모금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금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점에 신뢰를 분명히 보여야 모금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모금하는가가 모금 사업의 성패가 된다. 따라서 이번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을 통한 모금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참여 가능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성평등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단체나 사회적 성평등 약자에게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성평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단체들 이름과 이들 단체의 활동 내용과 기금액을 사전에 밝히는 것 등은 모금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모아진 돈들이 젠더 차원에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소외된 여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젠더의식이 강화되는 큰 계기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W**



말들에게 희망을 2021년 여름호 NO.146

여성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모금캠페인이 실현하는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에 생동감을 더했다.

후원(한국여성재단)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omenfund

유튜브
www.youtube.com/user/kwomenfund

해피빈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말들에게 희망을 2021년 여름호 NO.146 발행인 장필화 편집인 노지은 기획·편집 나눈기획팀 발행일 2021년 7월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디자인 그래픽오션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후원 라이나전성기재단

Contents

사립문

02 한국여성재단의 모금 캠페인을 응원하면서

조흥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서울대 명예교수

기획 / 한국여성재단 2021 성평등기금 모금캠페인

04 여성의 미래를 편딩하라!

08 유한김벌리 직원들의 2021 기부릴레이

12 한국여성재단의 소중한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이슈와 현장 / 이주여성의 활동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14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이주여성들과 함께 합니다!

16 [이주여성이족 여성청소년 사업 YOUTH POWER]

미래를 변화시킬 주역이 될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18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꿈꿉니다!

여성단체와 함께 편딩

20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파트너 단체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만나고 싶었습니다

22 1인생활자 공간 <결>의 대표, 차해영 활동가

24 주인공 '소정'의 위태로운 홀로서기를 그린

영화 <열아홉>의 우경희 감독

재단소식

26 재단활동 2021년 4~6월

28 기부자명단 2021년 4~6월

30 수입과 지출 2021년 1~6월

2021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라

제19회를 맞이하는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은 성평등 사회조성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연례 모금 캠페인입니다.

2021. 6. 1 [화] ~ 6. 30 [수] 까지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라!

2021 한국여성재단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의 미래를 편당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1년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하는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은 한국여성재단 대표 나눔 캠페인으로 성평등 사회 조성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연례 모금 캠페인입니다.

2020년도에 조성된 기금은 공모를 통해 21개의 여성단체를

선정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착, 차세대 여성운동 활성화, 여성 긴급 이슈 대응과 연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금은 성차별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전국의 여성활동가와 여성단체의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변화가 있었던 한국여성재단의 2021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기획 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의 하이라이트

1 모금 방식의 변화

올해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이کم이 중심 모금에서 대중모금으로 모금 방식을 변화한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중심의 모금에서 모금 저변을 확대하고, 이کم에게 완주 부담을 덜고 기부자 예우 강화를 통한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대중모금으로 모금의 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기부 환경을 조성해 기부하기 홈페이지(womenfund-campaign.kr)에서 간편하게 신청 및 결제 가능 기부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도 이번 캠페인의 큰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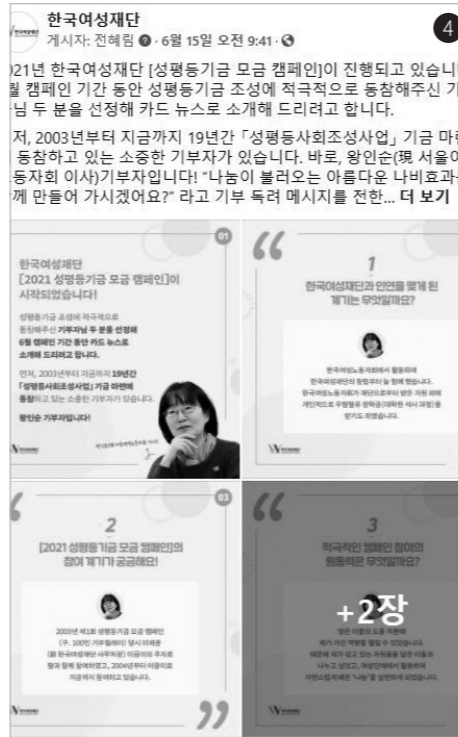
2 다양한 분야의 명사 캠페인 동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조홍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미화 홍보대사이자 안산문화재단 대표 이사 등 사회 주요 명사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민관협력 분야, 소외 대상 차별을 개선하는 사회복지 분야, 문화 예술 분야 등 캠페인 참여의 범위가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 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 2 김미화 홍보대사
- 3 조홍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1,000만원 고액 기부자 최한승·남주희 부부



모금캠페인 최초 정기기부를 한 (주)휴온스 기업

3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 시행

대중의 관심을 이끌고 기부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생성에 노력하고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먼저 캠페인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www.youtube.com)에 게시했으며 언론 보도, 뉴스레터 발송,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주1~2회 언론보도를 시행해 중앙일보, 스포츠조선,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의학신문 등 32개 매체에 캠페인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한국여성재단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채널에 캠페인 소개 카드뉴스, 언론보도 내용 등을 꾸준히 공유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홍보 활동은 WNC 단체(여성 관련 이슈를 다루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서 지원 받은 다양한 여성 단체들을 카드뉴스 방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 중 특별한 사례를 카드뉴스로 소개해 기부자 예우 및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1	3	4
2		

1. 성평등기금 모금캠페인 홍보 영상
2. 언론보도 된 기사
3. WNC와 연계한 카드뉴스
4. SNS에 게시된 기부자 미담사례 카드 뉴스

4 고액 기부자 및 기업의 첫 정기기부 출현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의 출현과 모금 캠페인 최초, 기업(주)휴온스에서 첫 정기기부를 시행했다는 점도 이번 캠페인의 큰 특징입니다. 또한 여성신문사 제21회 여성마라톤 참가비 성평등 모금 기부가 전년도에 이어 지속되었고, 유한킴벌리, JP모건, 한국산업은행, 매일유업 대표, 클리오 대표 등 기업에서도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2021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 결과 82,884,000원(7월 18일 기준)의 모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기부자수는 1,09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시기부와 신규 정기기부 1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꾸준히 매년 성평등기금에 정기기부를 이어가고 계신 약 천여 명분들의 힘이 보태어질 것입니다. 기부에 참여해주신 모든 기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금은 성차별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전국의 여성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많은 여성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

글 - 나눔기획팀 전혜림 대리

나눔에서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는

유한킴벌리 직원들의 2021 기부릴레이



생활혁신기업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17년째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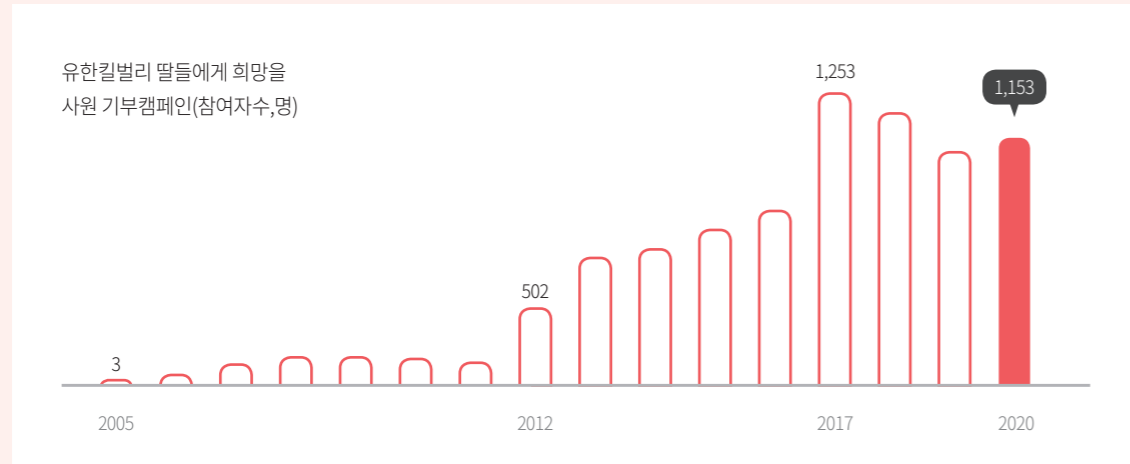
올해도 987명의 사원들이 모금에 참여해 33,790,000원을 기부하였으며 이 중, 캠페인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매월 정기기부를 약정한 사원이 133명, 지금까지 캠페인에 참여한 사원 수는 9,732명에 이르는 등 모금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활한 소통방식으로 사원들의 기부독려를 신장시키는 한국여성재단 캠페인 참여의 일등공신 유한킴벌리 이수연 수석부장이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수연 부장과의 Q&A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 유한킴벌리가 모금에 참여하게 된 계기, 사원들의 기부독려 방식, 재단과의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유한킴벌리는 18년 간 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모금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와 오랫동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유한킴벌리는 건강권 확보 및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사원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생활건강과 지구환경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사원들은 1년에 2회, 여성과 시니어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구, 100인 기부릴레이)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2019년부터 네이버 해피빈에서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회사와 소비자가 함께, 그다음 해에는 사원들의 기부를 추가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원이 어떻게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고 있는지, 회사와 소비자가 함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Q. 유한킴벌리는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이 아닌 임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으로 참여한다는 것(2020년에는 총1,152명의 사원들이 기부 주자로 참여)이 인상적인데요, 사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기부 독려 방식이 궁금합니다.

A. 유한킴벌리 사원들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원들이 힘을 모아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연말에 다시 한번 모금을 진행해 달라는 사원들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진행하게 되어 연간 모금을 3회를 진행한 특별한 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사원들은 기부의 투명성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참여한 기부 금액액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사업 결과 리포트를 공유받기를 원하며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들에게 기부금과 사용처를 공개하고, 회사 전체 이끔이에서 사업장별로 이끔이를 확대하여 전 사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직접 기부 방식과 급여 공제 방식, QR Cord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참여 등 매해 참여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방식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기부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사원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Q. 사원의 급여공제 기부 방식은 직원 뿐 아니라 연계 부서와의 합의와 설득이 필요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A.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는 하나, 사업장별 이끔이와 담당자들이 한달 동안 사원들에게 기부약정서를 작성하게 안내하고 약정한 기부 금액을 입금하게 하는 프로세스가 2010년대에는 약1,000명 이상으로 늘어나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참여하는 사원과 사업장별 담당자들의 고충을 급여공제 방식 도입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윤리법무본부와 인사운영의 도움이 없었다면 구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원들의 참여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종이 약정서 작성에서 QR Cord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끔이별로 참여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유한킴벌리는 캠페인 외에도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여성청소년 생리대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함께 하며 가장 인상깊었던 사업이나 에피소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A. 기업은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시민 단체와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획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단한 협업 관계를 지양하고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과는 여성활동가 대상 리더십과정 지원사업과, 생리대 기부 사업, 성평등 기금 모금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표성 확립을 위해 한국여성재단 창립부터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리대 기부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을 발굴하고, 보편적 건강권 확대를 위한 면서도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정상적인 사회에 모두가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 그 역할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고 다른 단체와 기업 CSR 등 확대되는 등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Q. 앞으로 한국여성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재단에 바라는 점 등을 말씀해주세요.

A. 최근 MZ세대와의 소통에 대한 설문조사나 연구 등을 보면 인식과 행동 모두 기존 세대와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M과 Z를 구별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묵묵히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속도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시민 단체와 기업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을 지속하는 한편, 함께 힘을 모아 공동으로 영향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는 유한킴벌리 이수연 부장과의 서면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Q는 한국여성재단의 질문으로, A는 이수연 부장의 답변 형식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랜시간 재단을 위해 애써준 이수연 부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가 함께 흔들림없는 중심점이 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W**

한국여성재단의 소중한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왕인순(개인 기부)

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

한국여성재단의[2021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이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오랜 기간 성평등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기부자님(개인·기업) 두 분을 소개합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19년 간 꾸준히 기금 마련에 동참하고 있는 왕인순님과 2016년부터 6년간 모금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민들레누비입니다. 이 외에도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기부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여성단체가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 한국여성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며 한국여성재단의 창립부터 늘 함께 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 외에 개인적으로 우림필류 장학금(대학원 석사 과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 [2021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의 참여 계기가 궁금합니다.

2003년 제1회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구. 100인 기부 릴레이) 당시 이재운(前 한국여성재단 사무처장) 이끔이의 주자로 딸과 함께 참여하였고, 2004년부터 이끔이로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가진 역량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고,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배운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4.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부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나눔'이 불러오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함께 만들어 가시겠어요? 나눔을 통해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민들레누비 (기업 기부)

1. 한국여성재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2009년 통영 YWCA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주여성 직업 교육과 관련해 한국여성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여성재단과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기업 '민들레누비'를 설립하였습니다. 정기기부 외에도 민들레누비 생산품(명함집 외)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2. [2021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의 참여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2년 사회적기업 '민들레누비'를 설립하며 이주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여성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6년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구 100인 기부 릴레이)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컸텐데도, 그럼에도 기부를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민들레누비'는 취약계층(이주여성)의 일 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기업입니다. 코로나19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작은 나눔이 모여 힘이 된다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 한국여성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사람, 한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인연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연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부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모으면 큰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세요.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W**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이주여성들과 함께 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주여성 활동가와 이주민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이주여성이 시민·이웃으로서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현안 발굴과 당사자 문제 해결 주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이주여성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은 2000년대 이후 증가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 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사업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주여성이 정착 초기에 언어, 교육, 소득, 거주 등의 지원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앞으로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시민, 이웃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 현안 발굴과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주여성은 한국과 모국 간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주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그 결과를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국 다문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활동가들 모임



2021년 3월 19일에 진행된 사전 워크숍 현장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일

한국여성재단은 먼저 이주여성 풀뿌리 활동가, 단체 분야로 나누어 이주여성 활동가와 단체에 안정적인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분야는 이주여성이 실무 인력으로 사업을 주도하면서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19일에는 단체 분야에서 최종 선정된 5개 단체 담당자들과 활동가 분야에서 최종 선정된 4명의 활동가를 포함,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황선영 활동가는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 이들을 위한 다문화센터는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를 이용하는 이주여성이 적어지면서 다문화센터는 발전하지 못했고 센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또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이주여성 활동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작해서 활동가들에게 지금 하는 일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인정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단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제가 하는 일이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독특 튀는 상상력과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이주여성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은 공모 시작부터 긍정적 평가와 함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주여성이 시민, 이웃으로서 관계 맺고 지역 사회 현안 발굴과 당사자 문제 해결 주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할 것입니다.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 문화, 언어, 삶의 지혜가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W**

글 - 나눔기획팀 전혜림 대리

미래를 변화시킬 주역이 될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주여성가족 자녀들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 장학사업 YOUTH POWER> [이하
<YOUTH POWE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Y한영이 후원하고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가 협력하는
이번 장학사업은 충북 지역 장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3년 연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으로 가득한 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들이
<YOUTH POWER>를 발판 삼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응원합니다.



이주여성 자녀인 여성청소년의 열악한 인프라 와 부족한 지지체계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YOUTH POWER>

이주배경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진학 이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 평균(4.3%)을 상회하는 충북 지역(4.6%)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수도권에 비해 지역 거주자들의 환경이 불리하며, 청소년 발달환경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원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비수도권의 이주여성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체험 지원 및 멘토링 지원을 통하여 이주여성가족 자녀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지 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가족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이주여성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한 장학생은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해 주었습니다.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정승희 센터장은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지 체계가 생기게 된다는 것에 이 사업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의 후순위에 밀려있는 비수도권에서의 지원이 절실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유관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EY한영 임직원의 멘토링 참여를 통해 이주여성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

재단은 앞으로 3년간 다양한 교육활동 및 멘토링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고 이들이 안정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매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각각 120만 원과 15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EY한영 임직원들과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며 멘티들은 진로 탐색을, 멘토들에게는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는 장학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멘토-멘티 간 상호 교류는 향후 여성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받아들이며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꿈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주배경 여성청소년들을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중할 수 있도록 사회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미래를 변화시킬 주역이 될 꿈꾸는 여성청소년과 함께 하겠습니다! **W**

한국여성재단이
미래를 변화시킬 주역이 될
꿈꾸는 여성청소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꿈꿉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동서식품 후원의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4개 단체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성남YWCA,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3년째 협력하고 있으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도 작년년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이주여성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소모임을 지원하며 이주여성뿐 아니라 그 자녀와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정확한 정보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현재 이주여성은 이주 배경 아래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자녀교육, 경제적 형편 등 생활 전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 가장은 한부모 가족 형태로서 국적 취득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과 동시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이중으로 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이주여성 가장의 자녀 소통 및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변동이 많은 상황에서 생계부양자인 이주여성 가장은 평일 낮 시간대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여성재단은 이주여성 가장이 자신의 일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돌봄, 소통, 사회관계의 형성 등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주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과 이주여성 소모임·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반 마련

2020년에는 서울, 경기, 충북, 전북, 경남 5개 지역의 이주여성 46명을 선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주여성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사회적 연결 네트워크를 마련했으며 이는 이주여성과 자녀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이주여성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쓰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 활용 전반에 관한 개인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주여성 가장은 언어 장벽과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정보 접근,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역량은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이를 해석·평가·재생산하는 역할을 포괄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디지털 영역의 규모가 커지는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 역시 강조될 것이라 판단해 이주여성의 정보접근·활용·생산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은 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비단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주민과 한부모 여성이 '잘 살기' 위해선, 성별·국적·나이 등 여타의 조건들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선주민으로 살아온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W**

2021년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이주여성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촬영 및 제작 실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행
- 아동학대예방·성폭력예방 등의 인권 교육과 자녀와 소통하는 방식 등에 대한 부모교육 시행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주여성들을 위해 자녀돌봄학교 및 자녀 프로그램 함께 진행
- 그 외에도 이주여성 사례 발굴, 표현예술 프로그램, 생활소품공예지도사 자격증 교육 등 지역 특성과 이주여성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지속 지원

글 - 나눔기획팀 전해림 대리

아이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엄마에게는 아이와 함께 하는 공간을 지원합니다!

이케아코리아가 후원하는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는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고 이케아 동부산점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의전화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시행된 <Mom-Up Project>는 부산 지역 내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 40가정을 대상으로 홈퍼니싱 워크숍, 자녀의 공부방 개선을 위한 가구, 소품 제공 등 양육미혼모 자녀의 공부방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과 <Mom-Up Project>를 함께 한 파트너 단체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이임조 대표를 만나 재단과 함께 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이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엄마에게는 아이와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Mom-Up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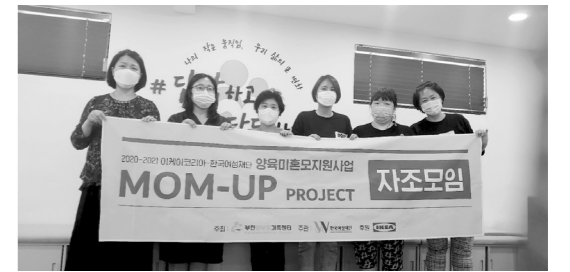
한국여성재단은 <Mom-Up Project>를 통해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홀로 아이를 꾸꾸이 키우는 양육미혼모와 아이들에게 양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등 양육미혼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및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육미혼모에게는 자녀와의 관계 증진 및 양육에 대한 의지 고취를, 자녀에게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육미혼모 가정의 삶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여성재단 <Mom-Up Project> 파트너 단체,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부산한부모가족센터]는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산의 여성 한부모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NGO단체로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한부모의 인권과 정책들을 제언하고 평등한 가족가치 확산 및 성평등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한부모(비혼, 조손, 다문화) 가족 상담 및 사례 관리, 자조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 활동,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 연구 활동,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등을 다채롭게 펼치고 있으며 부산 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 사업 단체 네트워크 구축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Q. 한국여성재단과 함께한 성과와 보람된 순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부산한부모가족센터는 2007년 한부모여성 가장을 위한 캐쉬 SOS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재단 파트너 단체로 함께 하였으며 센터가 확장하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재단의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 사업은 본인 관리에 소홀한 한부모여성 가장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희망을 전달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치아가 불편했던 한부모여성 가장은 건강증진비 지원으로 치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재단의 '짧은 여행 긴 호흡'으로 생애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성 활동가들은 한국여성재단에 끊임없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과의 협업으로 한부모 가정의 개인 역량 강화는 물론 센터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Mom-Up Project>를 진행하면서 인상깊었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재 양육미혼모들을 위한 한부모지원 사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부산,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들에게 <Mom-Up Project>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방이 생겼어!"라고 말하는 아이의 웃음을 볼 때, 골판지 상자에 옷을 넣어두고 방바닥에 엎드려 책을 보고 있던 집이 책상과 옷장, 침대로 채워진 방에서 행복해 하는 아이들을 볼 때 재단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Q. 파트너단체로써한국여성재단에게고마운점과 바라는 점 등을 말씀해 주세요.

A. 여성활동가,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한국여성재단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여성재단의 역할을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W**

글 - 나눔기획팀 전혜림 대리

1인생활자 공간 <결>의 대표, 차해영 활동가

1인생활자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관계를 맺는 공간 <결>

지난 4월 16일, 연남동과 성산동 사이에 1인 생활자 공간 <결>이 오픈했습니다. <결>의 대표인 차해영 활동가는 한국여성재단의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의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여성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풀뿌리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참신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 문화와 운동을 만들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에 참여한 차해영 활동가는 1인생활자 공간 <결>을 오픈했습니다.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며 하나의 중요한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현재, 고립되지 않고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풀뿌리 여성활동가로 사업에 참여하며 1인 생활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1인 가구의 소셜다이닝룸, 1인 프리랜서의 코워킹, 1인 자영업자의 네트워킹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1인 가구·1인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들과 함께할 '끼리'를 모색합니다. 1인 생활자들의 느슨한 관계망,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잘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공간 <결>의 목적입니다.

1인가구의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서로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펼쳐

차해영 활동가는 마포구 성산2동, 서교동은 여성청년 1인가구가 많고, 망원동, 연남동은 작은 공간을 운영하는 여성 1인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들을 작은 연결망들로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간 <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간 <결>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안전한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나의 힘을 키우고 서로의 결을 채기는 활동을 통해 1인가구의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서로의 지지기반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1인 자영업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1인가구들 대상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혼자서 사기 어려운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차해영 활동가는 여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 <결>에 올 수 있도록 공공생리대 비치,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지역의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여러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지원으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차해영 활동가

차해영 활동가는 "처음에는 <우야식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집, 시장, 동네 등에서 밥을 먹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1인가구·1인 프리랜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6년이 지나고 2021년에 지역에서 좀 더 안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1인생활자 공간 <결>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공간을 열 수 있게 되었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는 열 수는 없던 상황에서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지원으로 큰 힘을 얻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해보고 싶었던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며 1인가구·1인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글 - 나눔기획팀 전혜림 대리

어른과 아이의 경계에 선 열아홉

주인공 '소정'의 위태로운 홀로서기를
그린 영화 <열아홉>의 우경희 감독



우경희 감독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여성문화예술인 분야에서 선정된 우경희 감독의

장편독립영화 <열아홉>이 지난 6월 30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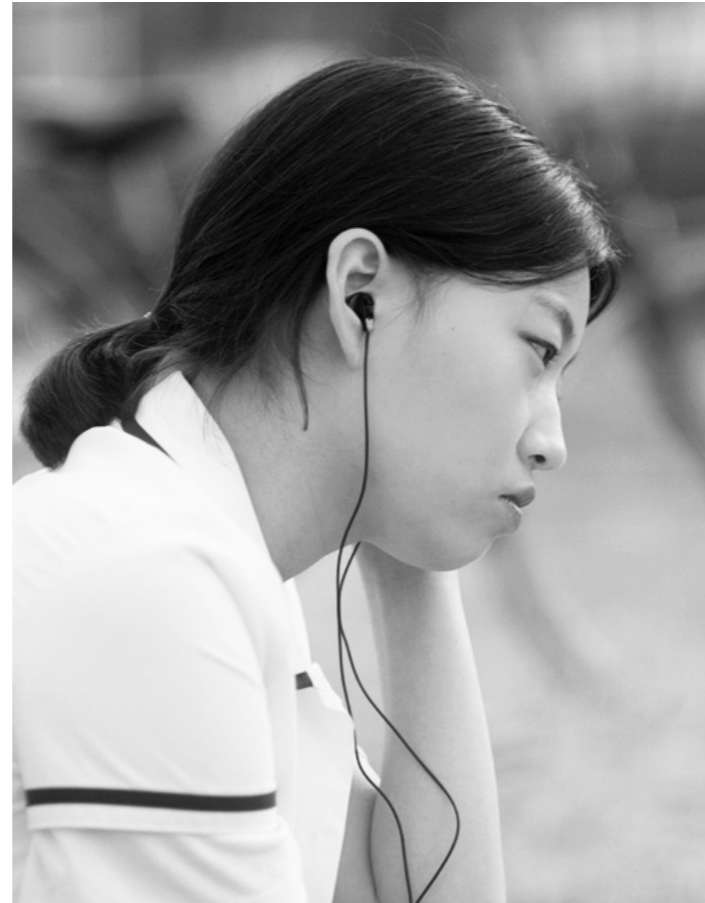
개봉을 했습니다. 우경희 감독은 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인해 여성의 삶과 가치를 '문화·예술'

작품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통한 여성 성장영화의 서사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열아홉 소녀 '소정'의 아슬아슬한 내면을 세심하게 담아낸
성장이야기, 영화 <열아홉>**

한국여성재단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경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영화 <열아홉>은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으로 예상치 못한 자유를 얻게 된 열아홉 소녀 소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소정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병든 어머니와 살아가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가 된 소정은 불안해하는 동시에 꿈을 찾아 나섭니다. 영화는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혼자의 삶이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며 변해가는 소정의 감정을 잘 나타냈습니다.

**영화 <열아홉>은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통한 여성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

우경희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영화에서 엄마의 시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여성캐릭터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여성캐릭터는 대부분 범죄사건의 희생자이거나 혹은 조력자 등 주변인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 놓여있으며 ‘왜’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영화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여성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성평등한 시각에서 작품에 임하겠다는 소감 전해

우경희 감독은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을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남은 촬영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업에 선정된 다른 분들이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어 촬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며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작업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활동가를 보며 작품을 대할 때 성평등한 시각에서 세심하게 임해야겠다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는 소감도 함께 전했습니다.

글 - 나눔기획팀 전혜림 대리



‘최한승·남주희 부부’ 성평등기금 기부금 전달

7월 1일 결혼식을 올린 ‘최한승·남주희 부부’가 성평등기금 10,000,000원을 기부했다. ‘최한승·남주희 부부’는 “성평등기금 기부를 통해 평등한 가정 문화를 이루기 위한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가정의 시작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기부는 최한승씨 모친인 이수형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이수형 이사장은 “새출발하는 자녀 가정에게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평등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재단은 성차별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평등기금 모금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기부 참여 및 문의는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T.02-336-6463)으로 하면 된다.



유한킴벌리 사원들,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 기부금 전달

한국여성재단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에 유한킴벌리 임직원이 뜻을 모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정기기부로 모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유한킴벌리 한 직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의 권익신장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부를 시작했다.”며, “우리 회사의 선한 의지가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 여러 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금은 성차별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전국의 여성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 여성NGO 장학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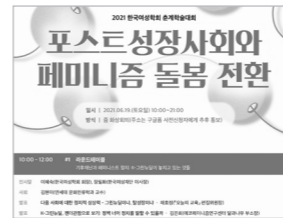
2021년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 수료식 개최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입 및 예비 여성 활동가들이 역량있는 시민활동가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2021년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이 지난 7월 6일(화)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10주간의 교육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수료식에는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유한킴벌리 최호연 지속가능경영부문장, 이화리더십개발원 이명선 원장 및 교육생, 관계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해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친 장학생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교육 과정은 2020년을 기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교육 형태를 경험함으로써 시민활동가로서의 성취감을 느끼고 업무 도입에 용이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연 70명 이상의 장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상반기 치과진료 분야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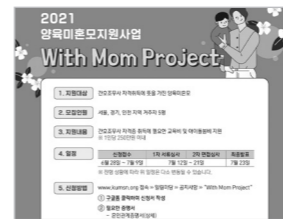
6월 7일(화)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상반기 치과진료 분야 최종으로 선정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여성가장 및 자녀 22명, 여성활동가 1명으로 총 23명이 선정되었다. 한국여성재단은 질병이나 안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여성가장들과 자녀 그리고 여성공익활동가들에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일반진료 분야와 치과진료 분야를 나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과진료 분야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2014년 7월 1일 협약체결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소속 치과들의 40%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모든 여성들이 삶의 무게로 인해 건강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 여성NGO 장학사업]

유한킴벌리, 한국여성재단 공동 2021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후원

6월 19일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트 성장 사회와 페미니즘 돌봄 전환’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한킴벌리 여성NGO 장학사업] 중 <실천여성학 장학생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활동가와 여성주의 연구자들의 젠더 쟁점 토론을 통해 여성학 지식 생산 및 여성운동 의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 추진되었다. ‘기후재난과 페미니스트 정치: K-그린뉴딜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포스트 성장, 기후 위기, 과학기술정책, 생태정책,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등에서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는 10개의 다양한 세션들이 마련되었다. 총 1,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필요하고 뜨거운 이슈들을 심도있게 다루며, 코로나 시대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2021년 양육미혼모지원사업 [With Mom Project]

간호조무사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양육미혼모지원사업 [With Mom Project]는 양육미혼모가정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연대여성치과의사회 후원으로 4년째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1년은 양육미혼모 5명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비도 함께 지원한다. 파트너 단체인 한국미혼모네트워크가 참여자 모집, 심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선정된 양육미혼모는 재단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입



- 기업지정기부금 52.7%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4.3%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6.4%
- 특정명의기금 2.6%
- 운영후원금 15.8%
- 기타수입 8.2%

지출



- 모금사업비 0.3%
- 배분사업비 118.0%
- 홍보사업비 0.7%
- 경상비 14.4%
- 시설비 1.5%
- 영업손실 -34.9%

(단위: 원)

항목	내용	금액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539,989,922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 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146,395,270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65,711,51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26,490,000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62,084,223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84,684,740
총 수입		1,025,355,665

(단위: 원)

구분	항목	내용	금액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 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2,765,404
고유 목적 사업비	1. 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수시지원사업(개인모금)		1,209,710,641
	2. 소외여성 empowerment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이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My Future, My Business <JP Morgan>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심프로젝트-짧은여행긴호흡(교보생명)		
	4. 프로스페라운영기금(프로스페라)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7,205,598
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47,319,644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5,315,375
영업손실			-356,960,997
총 지출			1,025,355,665



토종씨앗. 땅. 농민과 함께
만년된 어머니 살림 문화를 이어갑니다.

코로나 시대,
무엇을 먹으며 우리 자신과 자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생물 다양성을 살리는 농사, 여성이 만년을 이어온 토종 농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세요.

*총 매출의 1%를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합니다. (한국여성재단 기재 시 구매액의 3% 추가)

토종 · 제철 · 친환경 재료로 만든 가배울 식당의 음식을 맛보세요.

smartstore.naver.com/gabaewul

blog.naver.com/gabaewul

@사단법인 가배울

@gabaewul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과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를 위한 배움과 나눔의 커뮤니티 전성기캠퍼스

50+세대를 위한 어워즈 라이나50+어워즈

유쾌한 중년을 위한 헬스&라이프 매거진과 플랫폼 전성기

라이나생명 임직원의 나눔 실천 라이나건강한봉사단

라이나생명 텔레마케터의 목소리로 전하는 사랑있는전화